

AUTHOR 강구원

TITLE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일제 식민 통치하의  
종교정책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IN 고려신학교복교20주년 논문집  
(Sept., 1996): 325-368

## 改革主義 立場에서 본 日帝 植民 統治하의 宗教政策이 韓國教會에 미친 影響

강 구 원\*

1. 천황제를 중심한 일제의 통치이념
2. 민족 교회로 성장하는 한국 교회
3. 일제의 주권찬탈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종교정책
4. 일제의 종교정책에 대항하는 한국 교회
5. 일제 식민통치 종식과 한국 교회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한반도의 해방은 일본을 굴복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고 그것은 또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해방과 함께 무너진 재단 수축 운동에 깨끗하지 못했다. 남북한교회 공히 해방 후에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일본 대양신 숭배자들에 의해 그 교권이 계승되었다. 그 결과 소수의 참된 진리의 종들이 출옥 후에도 고난의 가시밭을 걸으면서 교권주의에 물들은 다수주의의 횡포 앞에 역사의 내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sup>1)</sup>오늘의 한국교회는 발전사적인 면에서 볼 때 근대 기독교사에 있어서 미증유(未曾有)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데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제

\* 고려신학교 전임강사(갈보리교회 담임)

1) 석원태, 설교전집 11권(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불 뿌리 IV" 서울 : 경향문화사, 1982, pp. 240-247.

각기 서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다. 이것은 신학의 부재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신학의 부재는 기독교 신앙의 돌연변이를 초래하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신학 부재의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인 횡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한국교회가 정리 보완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별히 일제 식민통치 시대의 종교정책하에 있던 한국교회 상황을 개혁주의 시각으로 고찰하면서 이 시대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 1. 천황제를 중심한 일제의 통치이념

### 1) 천황제국가의 보존 수단으로서의 종교정책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통치하는 종교정책은 천황제국가 특유의 종교정책이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었다. 1868년 1월 3일 왕정복고에 의해 발족된 명치체제는 천황제국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왕정복고가 정식으로 선포된 것은 1868년 3월13일 이었다.<sup>2)</sup> 3월15일에는 기독교의 儀를 엄금하고 전국의 모든 신사를 신지관에게 소속시켜 국가가 장악하도록 하고 4월 21일 신지관을 임명함으로써 神道國教化의 체제를 완비했다.<sup>3)</sup>

1882년 1월 24일에는 내무성의 하달로 신관의 교도직겸임을 금지하고 일반의 장의에 관계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로써 국가 제사만을 담당하는 국가 신도가 탄생하게 된다. 특히 국가신도는 천황이 일본개국신에 대한 제사인 天降祭나 천황조상에 대한 제사인 황령제들의 주관자가 되는 황실신도를 정점으로 하여 제사만을 담당하는 신사제도를 그 아래 두는 국가적 제사

2) 太政官포고 153호에 의해 정식으로 "이후 신무창업의 始初를 근본으로 삼아 제반 施務를 일신하여 祭政一致의 제도로 왕정을 복고하기 위해 신지관을 再興하고 諸祭의 준함을 다시 일으키고 전국의 모든 神社, 神主가 신지관에 소속되어 모든 同官에게 의뢰하여야 할 것임을 명심하도록" 전국에 하달한다.

3) 文部省宗教局編, 『종교제도조사자료』 제2권(동경. 原書房, 1978), p.1.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다른 종교와는 구분되는 공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 국가신도에 이와같은 공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최고 제사장을 국가의 최고 지위에 두는 신성가속 국가로서의 천황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sup>4)</sup> 이러한 신성가속국가를 명분화한 것이 결국은 명치 헌법이었다.<sup>5)</sup>

천황이 지배하는 국가는 일종의 신성가속국가라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4조에서는 천황의 통치권을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행사한다<sup>6)</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천황제국가를 입헌 군주제라고 부르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제 3조의 신성불가침 규정과는 어쩔 수 없이 모순된다. 통치방식이 명분화 되어 있다는 것은 통치의 카리스마의 신성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가 신도는 이러한 천황의 신성불가침성인 혈통 카리스마의 순수성과 신성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은 국가 신도를 철저히 국가 의례를 주관하는 제도로 범주화하고 여타의 종교를 국가의 신성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통치에 순응하는 것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sup>7)</sup>

이러한 일본 천황의 신성불가침화의 종교라는 것은 오직 국가가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국가로 귀속시켜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오직 국가만을 의존하는 태도를 기르는 국가 공인의 국민교도단체일 뿐이다.<sup>8)</sup> 이것은 이른바 명치체제가 꾸준히 추구하는 종교의 사회화<sup>9)</sup>라는 것이다.

4) 박승길, 『일제무단 통치시대의 종교정책과 그 영향』 현대한국의 종교와 사회(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제35집), 한국사회사 연구회 문학과 지성사(서울, 1992), p.23.

5) 1889년 2월11일 공포된 이른바 대일본제국 헌법으로서의 명치헌법은 제1조와 3조에서 萬世一系의 통치자로서 천황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한다(위논문 p.23).

6) 『朝鮮法令集覽』 상권 조선총독부편(京城: 제국행정 조선본부 1922).

7) 박승길, op. cit., p.24.

8) Ibid, p.25.

9) 종교의 사회화란 종교는 무릇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敎化的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란 의미이다.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의미 제한은 종교를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종교자체에 대한 사회적 규정 방식에도 어떠한 형태의 종교이든지 이러한 사회적 목적에 유용한 한 종교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종교적 관용주의를 뿌리내리게 한다. 특히 이러한 종교의 사회화라는 용어는

천황은 일본의 수호신에 속한다. 일본인들의 천황을 중심한 결집력을 감안할 때 일본인들의 최고의 조상신이라는 카리스마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힘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공적인 힘이다. 그래서 일제의 침략주의적 패권주의는 천황을 구심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전쟁 도발이다. 이러한 국책을 도전하는 민권운동이나 아나키즘<sup>10)</sup> 같은 사회운동이 당연히 등장하게 되었다. 일제는 국책의 신성성에 도전하는 일체의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 1881년 1월부터 시행된 형법은 근대적인 프러시아 형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최소한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민권파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 보수파에 의해 1907년 4월 24일 개정된 형법이 공포되었고 19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신형법은 황실에 대해 범한 죄를 구형법에 비해 확대 강화하기에 이르렀다.<sup>11)</sup>

天皇制國家의 종교정책의 근본적 골격을 보면,

첫째 天皇制國家의 국체의 神聖性理念의 절대화를 위한 국가신도의 보급

그대로 일제의 조선 침략 기도에도 나타나 합병후 寺內總督은 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교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종교의 본래 기능은 보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종교의 사회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선총독부 연보』 1911~12, p.213(위논문 p.25참조).

10) 玉川信明(이은순역) Anarchism (서울, 도서출판 오월 1991. p.15)

아나키즘의 語源은 그리이스의 anarchos인데 이것은 支配者가 없다는 것을 意味하며 원래 무강권주의로 번역될 수 있으며 主權者 없는 自由를 指向한다. Anarchism을 일본에 소개한 自井厚에 따르면 인류사회의 이상사회는 Anarchism 사회이나 인간 없이 Anarchism은 存在하지 않는다. Anarchism의 인간관은 性실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人間性을 歪曲시키는 여러 가지 抑壓的인 制度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뒤떨리고 사회도 나쁘게 되어 버린다. 抑壓的인 機構만 없으면 인간은 본래의 인간 그대로 자라게 되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抑壓的인 으뜸인 것이 국가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부를 廢止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박승길, op. cit., p.31-32.

天皇, 太古太皇, 皇太后, 皇后, 皇太子 또는 皇太孫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73조) 이들에 대해 불경의 행위는 물론 神官 또는 皇陸에 대해 불경죄를 저지른 자 역시 3개월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74조) 皇族에 대해 위해를 가한 자 또는 가하려고 한자는 사형에서 무기징역(75조), 皇族에 대해 불경행위를 한 자는 2개월 이상 4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76조) 규정한다.

(이등박문 『헌법이해』, 村上重良, 天皇と國家神道, pp.165-166.

과 그 통치기관화 조치

둘째 政教分離의 이름 하에 政權과 教權의 차별화를 통한 政權의 教權에 대한 통치 정치의 강화

셋째 宗教團體의 공인화를 통한 국가 공인종교의 법적 통제와 전국민의 국체에 대한 양심적 헌신 태도의 강화에 집중하는 사회적 기능부여

넷째 天皇制國家理念에 요구되는 개인의 인격 수양과 개별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종교의 사회적 범주 설정이었다. 이것은 곧 일본의 종교를 다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sup>12)</sup>

## 2) 일제 통감부 시대의 종교정책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사실상 전락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 한일 협상 조약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것은 러일전쟁의 승리에서 오는 결과로 인하여 받은 한민족의 아픔이기도 하다.

이때부터 조선땅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통감으로 이등박문이 부임하게 된 것이 명치39년(1906)이었다.

통감은 가까운 외국의 선교사와 접근하면서 한반도의 교화에 열정적인 힘을 쏟았다. 통감과 특히 친분을 같이한 M. C. Harris 감독<sup>13)</sup>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면서 한민족을 향한 정치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 이르는 계몽교화 작업에 M. C. Harris 감독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sup>14)</sup>

12) Ibid, p.33-44.

13) Ibid, p.37.

M. C. Harris 감독은 미국 감리교 감독으로서 이등박문등 일본 원로들과 가깝게 지내는 대표적인 친일선교사였다. 이 자는 『護教』 900호(1908. 10. 24)에서 이 당시의 기록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이등박문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 단체에 대해 호의를 표할 뿐 아니라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는 선교사를 대할 때 자신의 사명은 한국을 쇄신하여 자치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官民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小川主治, 池明編, 『日韓キリスト教關係史資料 1876-1922』 동경: 신교출판사, 1984 p. 386).

14) 이등통감은 M. C. Harris 감독과의 대화 중에 "정치상의 일체의 사건은 재가 맡고 이제

이등통감은 평양의 감리교 교회당 건축시는 금1만원을 기부하고 경성에 있는 조선인 소속인 Y.M.C.A.에 대해서도 사업유지 장려를 위해 국고에서 매년 1만원을 지원하도록 알선하였는데 이것은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sup>15)</sup> 이등통감의 이러한 종교정책은 반도를 일제의 통치이념대로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수단으로 하나의 외국의 선교사들을 일종의 敎化師로 역할을 분담케하고 일제의 통치 이념에 순응하는 교파나 단체에는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결국 이러한 정책을 천황적 국가의 절대적인 통치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계략전술에 불과하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종교정책은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었다. 종교는 항상 국가 이념에 요구되는 개인의 인격 수양과 개별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일합방 후 총독부는 일본의 토속종교를 식민지 한국에 적용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범주화시켰다. 그 첫 번째 기준이 종교내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 있는 종교인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가 이 종교가 국민 교화에 이용할 수 있는 조직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sup>16)</sup>

조선총독부는 한국기독교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선교사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신앙만을 보증하

부터 조선에서의 정신적 방면의 계몽교화에 관한 것은 간곡히 바라건대 귀하 등이 그것을 말할 때 비로소 조선인민을 유도하는 사업이 첫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위논문 p.37).

- 15)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施政年報』 大政 7년-9년 (서울 : 한국자료원 1983. 7. p.149).
- 16) 일제가 범주화한 기준에 적합한 종교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일본의 敎派神道였다. 그러나 이들 종교를 통하여 內鮮一致化 하려는 수단으로 각각 다른 정책을 수립하였고 그 포교성의 활동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정치적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총독부가 보는 시각에서 기독교는 국민 교화의 중대한 거점으로 본 나머지 기독교회의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과거 社寺堂宇의 토지에 대해 면세했던 관례를 따라 면제하고 1911년부터는 외국인등 종교목적에 특례를 부여하여 1912년 3월 『조선등록세령』을 제정 공포하면서 기독교회당 부지의 등록세도 부과하지 말도록 각 관계 기관에 통첩했다. 『조선총독부시정연보』 명치 34년(1911), pp.16-17.

기를 원했다. 그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잠재력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1910년 가을에 기독교 지도자 19명을 일본에 초청하기도 했다. 일부 외국선교사들은 식민정치에 대해 호의적이었는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sup>17)</sup> 일제는 조직력과 규모가 큰 기독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무관심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적 구원이나 개인적 심신수양에 관한 영역에만 국한하는 종교로 제도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 2. 민족교회로 성장하는 한국교회

### 1)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는 한 민족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수용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다. 19세기 중국에서 시작된 선교 활동은 대부분의 서구의 선교사들이었다. 그 중에 귀출라프와 윌리엄스 그리고 토마스목사는 한국의 복음화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만주에 와서 선교사를 하던 로스, 매킨타이어 등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배포하였고 이때부터 성경중심의 기반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개신교사에서 첫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목사와 그들이 타고 온 선박의 이름을 따서 불인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 사건은 1866년 9월 2일 약관 27세의 나이로 평양 대동강가에서 피흘려 죽는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토마스에게 한문 성경을 받았던 한 사람이 훗날 선교사 마펫(Samuel A. Moffett)을 찾았다는 일화가 있다.<sup>18)</sup> 그 배가 미국 선

17) "Letter of J. Brown to Masanao Hanihara" (1912. 2.16). 미국 장로교 외국선교회의 총수였던 브라운(Arthur Brown)은 재미 일본 대사관에 쓴 편지에서 『일본 통치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통치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한국이 자기 손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했다(박승길, op. cit., p.50).

18)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p.48.

적이었기 때문에 이 배의 행방을 추적하는 미국 해군의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것은 뒷날 辛未洋擾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간섭이 1882년의 한미수호통상 조약체결과 함께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땅에 들어오는 물고기가 트이는 셈이었다.

로스, 매킨타이어는 1874년 10월 9일에<sup>19)</sup> 영국을 출발하여 청국과 조선국의 국경이자 양국 사이의 합법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던 봉황성(鳳凰城) 아래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한국 상인을 만나 한문 성경을 팔면서 전도했다.<sup>20)</sup>

1876년 3월 강화도 조약에 의한 한국문화개방 소식에 자극을 받아 로스는 의학 교사를 얻고자 여러차례 시도한 끝에 의주 상인 이응찬(李應贊)<sup>21)</sup>을 만날 수 있었다. 로스를 통하여 성경출판과 번역 사업까지 이루어졌고 1879년 1월에는 한국개신교 사상 한국인 수세사건이 있었다. 쇄국주의 정책으로 밀폐되었다가 문화개방과 함께 서구의 문화가 몰밀 듯이 밀어닥치자 서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드렸던 것이 당시 한국의 형편이었고 한국교회의 입장이었다. 政治적으로 관료주의 전제군주체였고 外交적으로는 배타적인 쇄국정책에서 西政문화의 바람이 불어와 개화 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던 때였다. 이 바람과 함께 한반도의 비운이 질게 깔려 가던 때였다. 경제적으로는 화폐제도에 입각한 초기 자본주의가 태동하였다. 思想的으로는 유교도덕이 전통화 하였으나 정치와 함께 부패하여 역량이 없었고 불교의 힘은 타락하여 무당과 함께 멸시를 받고 있었던 때였다. 時局的으로 볼 때 조선 왕조는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서구와 일본까지 포함한 자

본주의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조성된 위기로서 이것은 민족적인 위기였다. 일제는 조선을 자본주의 시장에 끌고 나와 노동력과 원료의 공급지를 만들어서 강대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위협이었다. 목화가 일본에 가면 솜이나 면제품으로 둔갑해서 한국시장에 비싼 값으로 등장을 하고 누에고치가 일본에 건너가면 비단이 되어서 몇 배의 고가로 매매가 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國內으로는 봉건적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위화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신분제도에 대한 불평과 반발이었다. 이렇게 국운이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外交政勢는 1894-1895년의 청일전쟁 1904-1905년의 러일전쟁으로 한반도는 일제의 팽창주의 세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강화조약,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으로 이루어지는 망국의 비운이 질게 드리워지는 시기였다. 이렇게 국운이 기울어져 갈 때 국운을 바로 잡고자 외국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종교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수양을 얻고자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가 되는 신앙수용자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각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형성등 흔들릴 수 없는 신앙신념의 뿌리를 교회회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시작했다.<sup>22)</sup> 한국교회는 자연히 한국인이 찾아야 할 유일한 정신적 보루가 되었고 한국의 기독교는 자연히 민족적 수난과 함께 기독교적 수난까지 겪게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압으로 순교와 순국이라는 이중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sup>23)</sup>

## 2) 민족교회로 정착하는 한국 교회

나라를 잃은 슬픔이 절망으로 변했을 때 기독교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함으로 새 희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교회는 이스라엘 출애굽운동의 역사나 바벨론 포로민의 비운과 역사를 구원론적 입장

19) J. Ross, "visit to the Korean Gat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Nov, Dec, 1875, pp.471-472.

20) 당시 한국인들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영국산 양복에 관심이 많았으나 그 날밤에 여관에 머물고 있는 로스에게 50대 남자 상인 한사람이 찾아왔다. 로스는 그에게서 한국 정세와 한국인의 발음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때 로스는 그 상인에게 한국 신앙성경과 <훈야진언>(訓兒眞言, peep of day)을 건네줄 수 있었다. Mr. MacIntyre's work,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July, 1. 1880, pp.278-279, <한국기독교의 역사(1)>, 「한국기독교 역사연구회」, 기독교 문화사, 서울 : 1989 pp.142-143 참조.

21) J. Ross, "corean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 How I come to make it", united presbyterian magazine, May, 1, 1883, pp.206-208.

22) 석원태, op. cit., p.217.

23) Ibid, p.218.

에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성격마저 띠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쉽게 민족주의와 관계 성립이 이루어지면서 국권회복에도 큰 힘을 동원했다.<sup>24)</sup> 일본에 주재 중인 미국 선교사들은 일본에 유학 온 한국학생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 한국학생들은 고국 복음화의 소원이 점점 노골화되어 갔다.

매클레이 목사(Robert S. Maclay)와 미국성서공회 총무인 헨리 루미스(Henry Loomis)와 미국 장로교회 낙스(George W. Knox)는 한국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등 접촉이 본격화 되었다. 미국선교사 낙스(George W. Knox)는 1883년 4월 29일 주일에 야스가와 목사 입회 하에 노월정교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세례문답 후 이수정에게 세례를 베풀었다.<sup>25)</sup> 그 후 이수정으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케 했다. 당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선교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클레이 목사는 몇 해 전에 도쿄에서 김옥균<sup>26)</sup>을 만나 한국 사정을 잘 알아두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김옥균을 통하여 국왕으로부터 한국에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회보(Christian Advocate)라는 기관지에 한국에 대해 소개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한국 선교에 관심이 더욱 활성화 되어 갔다.

중국으로 건너간 미국장로교 선교사 알렌(Dr. C. Allen) 의사는 1년동안 여러곳을 다녔지만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알렌은 1884년 9월 14일 상해를 떠나 7일 만인 9월 20일에 지금의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다. 그리고 22일에는 서울에 도착하여 그는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주재 선교사가 되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외국에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것이

24) Ibid, p.219.

25) G. W. Knox, "Affairs in Corea", F.M, June, 1883, p.17.

26) 한국기독교의 역사(I), op. cit., p.168. 1884년초 김옥균은 루미스를 찾아가 녹스 목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연구하였는데 기독교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서둘러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H. Loomis' letter to Dr. Gilman, 1884, 1.29)

금지되었으나 알렌만은 서양의술의 힘으로 허용되었다.<sup>27)</sup>

알렌은 애조판서 조병호를 통하여 병원 설립허가를 얻어 갑신정변에 죽음을 당한 홍영식의 집을 광혜원(廣惠院) 혹은 제중원(濟衆院)이라는 이름을 붙여 병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는 국왕으로부터 3번이나 훈장을 받았다. 이때는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면 목베임을 당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는 것이 상례이나 알렌에게는 예외였다. 그 후에 언더우드목사와 아펜젤러목사가 들어오고 릴리아스 호튼의사(Dr. Lillias Horton)가 와서 광혜원의 여자부를 책임 맡는 동시에 왕비의 전속의사가 되었다. 그해 12월에는 서대문밖(지금의 아현동)에 시약소(施藥所)가 개설되었다. 제중원은 초기 한국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장로교 선교부는 1887년에 이 병원을 남대문 안으로 옮겼고 알렌은 선교사직을 사임, 주미 한국공사관 직원이 되었고, 대신 호튼이 맡아보았다.<sup>28)</sup> 서양의사와 병원은 이름 모를 질병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목마른 대지에 단비와도 같았다.

교육사업 또한 의료사업 못지 않게 활발했다. 아펜젤러는 이미 1885년 11월에 미국공사 폴크를 통해 고종으로부터 학교설립 허가를 얻어 놓았다.<sup>29)</sup> 이태왕(고종)은 인물을 배양한다는 뜻의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이름을 내리는가 하면 언더우드목사는 1885년에 정동에 있는 자기 집에 붙여 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교아원을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경신 중·고등학교

27) 알렌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무렵 민씨일파의 보수파와 개화당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때 甲申政變의 금위대장인 민영익이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 서울 장안의 한의사 14명을 동원하여 보았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알렌이 나타나서 3개월만에 민영익의 상처를 완전히 낫게 했다. 1885년 1월 27일 민영익은 알렌의사에게 사례의 편지와 함께 10만금을 보냈다. 이 때 서양의술이 입증되고 궁중의사 즉 어의(御醫)로 임명되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I), op. cit., p.194참조>

28)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891, P.135.

29) H. G. Underwood's letter to Dr. Ellinwood, Aug, 29, 1885, 미국장로회 해외 연례보고서, 1885, p.238.

와 연세대학의 모체가 되었다. 1896년에 스크랜튼이 이화학당을 세우고 장로교 선교부는 여자만을 위한 정신 중·고등학교를 1888년에 세웠다. 1894년에 숭실학교와 숭실여학교가 세워졌고 1906년에 숭실대학과 세브란스 의학교가 세워졌으며 1909년에 이화학당내에 대학교가 1915년에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졌다. 1910년 한일합방 전까지 기독교계 학교 수는 모두 823교나 되었다. 일본총독 데라우찌는 그의 연설에서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학교의 학생 수가 20만이 넘었다고 한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교육사업의 대혁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 세워졌던 기독교 학교들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sup>30)</sup> 상술한 의료사업이나 교육사업이 모두가 선교사업이라는데 부정할 수 없다. 선교사들은 날마다 노방전도를 시작했고 언더우드 목사의 사랑방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다. 1893년에 모인 제1회 선교사 공의회에서는 선교정책이 채택되었고 여기에서 선교구역이 편성되고 순회전도와 선교지구가 확정되었다. 각 기독교단체운동은 강한 애국민중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1896년 배재학당에서 일어난 협성회 운동은 민족의 신문화 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Y.M.C.A.는 1903년 10월 28일 황성기독교 청년회로 발족하여 이상재, 윤치호, 신흥우,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전반의 사상과 생활 계몽의 길잡이가 되었다. Y.M.C.A.는 1922년 3월 김활란, 김필례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여성해방과 여성 계몽에 주력하여 여권 신장

30) 이만열,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7, pp.190-198.

- 평양-숭실학교, 송의여학교,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 광주-송일학교, 수피여학교 • 인천-신성학교, 보성여학교
- 군산-영명학교, 매향여학교 • 대구-계성학교, 신명여학교
- 목포-영흥학교, 정명여학교 • 함흥-영생학교, 영생여학교
- 재령-명신학교 • 순천-매산학교 • 성진-보신학교, 보신여학교
- 강계-영실학교 • 공주-영명여학교, 영명학교 • 인천-영화학교
- 원산-보광학교, 루씨여학교 • 수원-삼일학교, 미향여학교
- 이천-양정여학교 • 개성-한영서원, 호수돈여학교, 미리롬여학교
- 전주-신흥학교, 기전여학교 • 부산-일신여학교
- 마산-황신학교, 의신여학교

의 기수가 되었다.<sup>31)</sup>

1896년 독립협회가 서재필에 의하여 조직되어서 정부의 무능한 시책을 비난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중요한 인물로는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안창호, 이상재 등 기독교 청년들이 중심이 되었다.<sup>32)</sup> 그 외에도 신민회 흥사단 임시정부에서 기독교 계열의 사람들이 주동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교회가 민족 교회로서 성장한 뚜렷한 역사적 교훈이다.<sup>33)</sup>

### 3)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교회

나라를 빼앗긴 민족적 양심은 의분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동휘씨는 『무너져 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를 믿어라 예배당을 세우라 자녀를 교육시켜라 기독교인 100만이 되는 날은 독립의 날이다』라고 설교함으로써 국권회복과 민족적 울분에 불을 질렀다. 길선주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진리의 불길은 자유에 있으며 자유를 거슬리는 일은 죄악이다 기독교는 언제나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일부의 부당한 구속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고 기독교는 이 배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였다.<sup>34)</sup> 이 사건은 황해도 지방 청년들이 안악 우편국 폭파를 음모했다고 날조하여 그 지방의 항일투쟁의 기독교 청년 김 구, 이승길, 김홍양 등을 구금 체포한 일명 안악사건이다. 이 지역이 바로 안중근 의사 출신 지역이었다. 이등박문은 서북 청년 300명만 체포 감금하면 이 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지역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항일 투쟁이 맹렬한 지역이었다. 1908년 황해도에 김 구, 최광옥, 도인전, 이승길, 김홍양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총회가 조직되어 교육과 계몽운동에 힘썼다. 1910년 안중근 독립운동자금과 결부시켜

31) 석원태, op. cit., p.

32) 춘원 이광수는 그의 저서 "민족개조론"에서 『조선에서 애국이란 말은 독립협회에서 위시했다』고 했다.

33) 석원태, op. cit., p.220.

34) Ibid, pp.119-200.



일제가 위의 인물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자백을 강요해서 15년 이상의 중형에 처했고 회원 40여명을 제주도와 울릉도에 유배시킨 일명 해서교육총회 사건이다.<sup>35)</sup> 일제가 한국의 애국 인사를 한꺼번에 제거할 목적으로 날조된 대규모 탄압 사건이다.<sup>36)</sup> 이 사건은 일명 105인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일제의 한국 교회에 대한 최대의 박해 사건이기도 하다. 105인 사건에 직접 연루된 바 있는 선우훈(鮮宇燾)은 일제가 105인 사건을 조작한 이 유종의 하나가 기독교 탄압과 추방에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sup>37)</sup> 1910년 11월 5일 압록강 철교 낙성식에 참석하려고 떠났던 당시 데라우찌 총독이 신천에 잠시 하차했을 때 기독교인이 그를 암살하려 했다고 모략 날조했다. 이로 인해 신민회 중심의 기독교 인사 이명룡, 김동원, 윤치호, 유동열, 양기탁, 양전백 등과 목사 6명 장로 50명 집사 80명을 포함하여 서북 인사와 교회지도자 500여명을 투옥한 사실이다. 그중 125인이 기소되었는데 98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기소된 자중 105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일제의 음모였다.<sup>38)</sup> 이어서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일제에 대한 민족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기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일제의 주권탈취와 한국 강점에 따른 민족적 모순의 증대에 있다.<sup>39)</sup>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3·1운동의 원인에 대해 한 조사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1)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갈망 (2) 일제의 엄한 군정과 횡포 (3) 민족성 말살의 기도 (4) 사업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의 한국인 배제 및 차별 (5) 임

35) Ibid, pp.220-221.

36) 尹慶老, 『105人 事件을 통해 본 신민회 研究』, p.1.

37) 李承晚, 『한국교회필박』 pp.50-59; 白藥濬, 『한국교회의 필박 - 특히 事內總督謀殺未遂陰謀의 陰謀에 대하여』, (神學論壇) 7면, 1962, pp.22-23.

38) 석원태, Loc. cit., p.221.

39)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II), 기독교교문사, 서울 1990, p.24.

금, 교육, 법 적용에서의 한국인 차별대우 (6)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박탈 (7) 종교의 자유 제한 (8) 한국인의 해외 여행과 유학금지 (9) 비옥한 토지의 약탈 (10) 공장제도 및 마약방임등 한국청년 비도덕화 퇴폐풍조 조장 (11) 만주에의 한국인 강제이민 (12) 일본인을 위한 개선과 한국인에 대한 착취 등이라고 지적했다.<sup>40)</sup>

이때의 한국기독교 신자의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3·1운동 직전의 통계에 따르면 대략 장로교인이 16만명 감리교인이 3만 명으로 기타 중소 교파까지 합하면 20만 명이 넘었다.<sup>41)</sup>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의 작용은<sup>42)</sup>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의 탄압이 이 나라 우국지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하는 기회가 된 셈이다.

### 3. 일제의 주권 찬탈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종교정책

1914년 8월은 일본이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때였다. 이러한 대외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총독부는 2개 사단 병력을 상주시키는 등 한국 내에서의 병력을 증강했다. 일본은 동맹국인 영국이 독일과 교전 상태임을 들어 1914년 8월23일 독일에 대한 최후통첩을<sup>43)</sup> 하고 태

40) 閔庚培역, 『3.1운동사(7)』(기독교 사상), 1966, 7, pp.100-103.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문제 위원회의 『3·1운동에 관한 보고서』

<The Korean situation(1)>

41) 1918년 장로교 총회와 복감리교 연합회 통계에 의하면 교인수는 각각 160,909명과 19,543명이고 남감리교의 경우 1919년 연회통계로 9,460명이었다.

42) ① 전개군주 정치에 대한 교회의 강한 연대감과 통일성의 향기를 나타낸 것이다.

② 강한 애족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실재를 보여 주었다.

③ 강한 애국과 애족 사상은 강한 정신적 신념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국기독교의 역사(1), op. cit., pp.24-29>

43) 1914년 8월 1일 독일의 프랑스와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참전이 임박한 영국은 영일동맹을 기속으로 적극적으로 참전하고자 하는 일본을 가능한 한 제지하고자 했다. 이에 일본은 영토확장의 야심이 없음을 각국에 주시시켜 양해를 구하고 8월23일 대독선

평양 독일령 군도와 산동반도 남단의 교주만에 있는 독일의 조차지를 점령하고 나아가 극동에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1915년 1월 18일 사실상 중국의 보호 국화를 의미하는 일본의 21개조 요구는 일제의 침략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하여 서구 열강은 초기 극동에서 일본의 팽창을 대체로 묵인하였다. 그것은 일본의 팽창이 러시아의 극동진출을 저지시키려는 그들의 정책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안전이해(Security interests)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미국도 역시 일본에게 일정하게 양보하고 있었다.<sup>44)</sup>

종교적으로 통치가 점점 일본이 요구하는 쪽으로 장악되어 가자 서서히 자신들의 국체의 우월성을 교화하는 國家神道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보급하기 시작했다. 신사를 창건하는 저들의 솔직한 의도는 일본을 한국에 이식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의 조상신을 우리의 조상으로 삼아 황민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 신사의 창건과 함께 1916년 1월에 총독부 훈령 2호로 공포된 敎員心得은 이러한 황민화 정책의 의도를 일상적 교육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주입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완전히 일본인으로서 정신 개조를 할 목적으로 제정 발표된다.<sup>45)</sup>

### 1) 신사참배 강요와 그 배경

일제 식민 36년간 한국교회는 무수한 박해를 받아왔다. 본격적인 박해는 1936년부터 1945년 어간에 일어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였다. 1876년 강화

전포교를 했던 것이다. 일본의 참전 목적과 각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長瀬新次郎 『구주대전참가문제』 일본국제학회편 『일본외교사 연구 : 大正時代』 (有斐閣, 1958) 참조.

44) The American Assembly, The United States and the Far East, Columbia university, 1956, p.29.

45) 『朝鮮總督府施政年報』 大正 4年, p.330. 총독부는 이것의 발표의도를 특히 국민성의 함양과 국어를 보급하는 데 힘써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워 실질적이며 근면한 기풍을 조정하여 一視同仁으로 忠良한 국민을 육성함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도 조약으로 개항장에 거류하게 된 일본인들이 그들의 거주지역에 소규모의 신사를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합방 2년후인 1912년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한국의 신사의 건립을 계획했고 1918년에 서울 남산에 조선신사건립을 착수하여 1925년 조선신궁(朝鮮神宮)이라는 이름의 신사를 완공했다. 이때부터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초자연적인 것과 능력있는 자를 모두 신으로 삼고 있으며 자연 종교와 씨족 종교를 합쳐서 八百萬의 神을 모시는 일본 특유의 원시종교를 가리켜 신도(神道)<sup>46)</sup>라고 한다. 현재의 일본 천황은 살아 있는 신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신국(神國)이다. 이 일본의 국체는 만고불변의 국가이고 절대불패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섬기는 것이 신으로부터 온 대도라고 한다. 이 대도를 따르고 나타내는 일정한 양식의 건물이 곧 신사(神社)이고 이곳은 신령을 모시고 제사하는 장이다.<sup>47)</sup>

1931년 일본은 만주국을 세우면서 천황제를 배경으로 군국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앞세우기 시작했다. 1936년 남창량이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면서

① 국체명칭과 경신사상 함양 ② 선만일어 ③ 교학진작 ④ 농공병진 ⑤ 서정쇄신이란 5대 지침서를 내걸고 천황제의 견고한 확립과 영토확장을 꾀하기 위하여 황민화 정책을 전개하였다.<sup>48)</sup>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황국신민의 서사<sup>49)</sup>를 강요했다. 일제는 면(面)에 1개의 신사 설립을 적극추진 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말 대신에 일본어를 사용케 하고 창시개명 전시정신 함양 시국체제 확립에 분주했다.

46) 신도(神道)는 일본에서 발생한 정통적인 종교적 관습들로서 이러한 관습을 뒷받침 해주는 삶의 태도 및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47) 이근삼, 논문 『신사참배를 재검토한다』, 신학정론, 제13권 1호, 합동신학원, 1995년, p. 10.

48) 석원태, op. cit., p.225.

49) ①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② 우리들 황국신민은 서로 신에협동하여 단결을 굳게 한다 ③ 우리들 황국신민은 서로 인고단결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한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 조희시마다 암송토록 했다.

이러한 신사참배 강요 의도는 첫째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한 정신무장을 꾀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일제 무단정치의 권력 유지의 방법으로 황국신민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말살하여 내선일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넷째는 신앙자유를 유린하는 종교적 침략 행위이며 나아가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전개하고자 함이었다.

패권주의를 앞세운 일제는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그러나 기독교 학생들은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말미암아 다시 문제가 제기되었다. 1932년 1월 전남 광주지역에서 만주사변에 대한 기원제를 개최하고 학생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나 기독교계 학교가 이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다.<sup>50)</sup> 같은 해 평양지역에서 만주사변 1주년 기념 전몰자 위령제를 개최하고 기독교계 학교도 참여하도록 도지사가 공식 통첩을 보냈으나 숭실전문학교를 위시한 10개의 기독교계 학교가 불참했다.<sup>51)</sup>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기독교계 학교에 사찰을 강화하고 노골적인 탄압이 가해졌다.<sup>52)</sup>

일제가 이러한 강경책을 쓰게 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조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배제시킴으로써 식민지 교육을 본격화하려는 데 있었다. 일제는 신사참배 강요를 논리화시켰다.<sup>53)</sup> 이

러한 총독부의 강경한 태도에 안식교의 의명학교 교장은 신사참배를 하기로 굴복하였으나 숭실학교의 맥륜과 승의여학교 교장 스누크(V. L. Snook)는 끝까지 거부하여 이듬해 1월 교장직에서 파면된다.<sup>54)</sup> 일제는 일반인에게도 신사참배와 신도적 행사를 적극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羊1,570,000을 들여 1918년 시작한 조선 신공을 1925년 10월에 준공을 보았다. 이것을 기점으로 전국의 신사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신사를 중심한 행사나 참배자의 수도 해마다 증가했다.<sup>55)</sup> 1931년 우리나라 신사(神社)의 수는 51개, 신사(神祠)의 수는 231개였으나 남차량이 총독이 된 후에 한반도에 세워진 신사의 수는 2300여 개로 한국민족의 정신을 빼앗아 가는 구체적인 장이 되었다.<sup>56)</sup> 1938년 8월에는 이러한 신사 숭경을 공적인 지원과 신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운 제도가 신찬폐백료공진제도(神饌幣帛料供進制度)다. 일제는 산간, 벽지, 면단위까지 신사를 세우도록 하는가 하면 파출소, 주재소 등 관공서나 학교에 신궁대마를 넣어 두는 간이 신사라 할 수 있는 가미다나(神棚)를 설치하게 하였다.<sup>57)</sup> 마침내 가미다나는 공적인 행정 기구를 통하여 일반민가에까지 신궁대마(神宮大麻)를 강제하여 가미다나를 설치토록 하고 아침마다 참배토록 했다. 이 신궁대마의 보급 추세

50) <木浦新聞> 1932. 1.14 皇軍에 대한 祈願祭에 참가하지 않은 光州의 그리스도 학교, <한국기독교의 역사(II), op. cit., p.289참조>.

51) <大阪毎日新聞> (朝鮮版) 1932. 11. 9, 『숭실학교를 위시한 10校에 始年書如何로 단언 폐교처분』 및 (毎日申新) 1932. 11.11, 『평야부내 사립 10교 위령제장 불참』.

52) 朝鮮新聞 1933. 6.21,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국민교육의 철저』.

53) 신사참배 논리는 다음과 같다.

- 1)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예배행위가 아니고 조상에게 죄대의 경의를 표하는 것일 뿐이다.
- 2)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지적인 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천황의 신민(臣民)이 되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함께 신사참배를 통하여

여 천황에 대한 경의를 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신사참배는 자유에 맡길 뿐이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I. R. M>, No. 114, April, 1940, pp.182-183.

54) 朝鮮總督府, (極秘, 평양에서의 외국 사립 중고등학교장의 신사불참배 문제 경위 개요), 1936, <한국기독교의 역사(II), op. cit., p.290참조>.

55) 조선신도 참배자의 통계(1933-1937) 近藤喜傳, <海外神社の史的硏究>, 1943, p.257.

연 차	참배인원수	내 역			전년에 비해 증가수
		일본인	조선인	기 타	
1933	552,910	456,882	95,230	798	91,770
1934	618,622	499,885	116,812	1,925	65,712
1935	937,588	709,714	225,488	2,359	318,966
1936	1,173,853	829,314	340,909	3,630	236,265
1937	2,022,294	2,018,629		3,665	848,441

56) 석원태, op. cit., p.236.

57) 西鮮日報, 1935. 6.10, "一面一社의 神域에 郷土民謠를 장려하다."

는 1935년에는 8만여 체(體)였던 것이 1940년에는 1백만여 체에 달했다.<sup>58)</sup>

## 2) 신사참배 강요와 한국교회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가 직접적으로 일본적 전향을 요구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은 1938년부터였다. 중일전쟁 이후 황민화 운동의 고조와 함께 교육계에서의 신사참배 문제가 일제의 의도대로 일단락 되어가고 있을 때 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강요하기 시작했다.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지도 강화하도록 했다. 일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총회, 노회 조직을 이용 신사참배를 결의할 것을 강요해 왔다.

### (1) 신사참배 비종교화 정책

이미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사는 일본 교유의 종교인 신도에 근거하여 천조대신과 종신(宗神)들을 신사에 모시고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섬기는 민족종교이다. 일제 명치유신 정부는 현대국가건설이라는 명분에 맞도록 헌법을 제정, 신교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함께 일제의 종교 행정의 대상이 되었다.<sup>59)</sup> 신교의 자유화에 따라 일본의 신도도 다른 종교와 같이 강조할 수 없게 되었다. 일제는 신도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도를 신교(信敎)의 자유화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도신사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도신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성 신사국에 속하게 하고 국가의식 또는 국민의례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은 의무적으로 참배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간악한

술책에 지나지 않고 신도신사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소화(昭和) 13년 9월(1938)에 종교단체법을 공포하여 종교통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몰지각한 짓을 하면 안녕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공익을 해치는 자이므로 종교단체법에 의해서 처분하고자 한다」고 종교국장은 국회의 질문에 의기양양하여 답변하고 있다.<sup>60)</sup> 일본 문무성 종교국은 이 종교 단체법에 의해서 신사신도를 전 국민에게 강요할 방침을 세우고 시달하였으므로 신사참배가 종교행사가 아니라는 명목 아래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신도인이 되게 하려 했다.<sup>61)</sup> 신교의 자유에 따라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위장했으나, 실상은 신도이념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의 단결과 황국신민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 헌법상의 信敎의 자유는 사실상 정권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그것도 국가의 통치 행위에 도움을 주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었다. 이 원칙이 철저히 한국교회에도 적용되었다. 이런 체제하에서의 종교정책은 일단 종교의 敎權과 政權의 경계를 설정하여 敎權의 사회적 존재 양식과 그 기능을 규정하여 정권의 통제 기구속에 자리잡게 하는 작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일관된다. 일제의 종교정책 방침은 바로 정권에 의한 교권의 보호를 약속하고 그 대신 정권의 지배 정당성 논리의 교화를 담당하는 기구로 작용하여 천황제 국가가 요구하는 氏子적 소명의식에 충실하고 선량한 신민으로 모든 한국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황민화 정책이며 그 점에서 일관된 일제의 종교정책 방침은 황민화 정책인 셈이다.<sup>62)</sup>

일본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할 줄 몰랐다. 그 결과 기독교는 황도기독교(皇道基督敎)가 되고 말았다. 교권에 대한 정권의 지배 정당성이 가시화된 것이다. 그것은 일제가 종교단체법에 따라 문무대신이 교회정치와 교리

58) 神宮大廳 보급원황(1935-1940) <한국기독교의 역사(II), op. cit., p.292>.

• (1935 - 81,063) • (1936 - 74,515) • (1937 - 178,076)

• (1938 - 575,195) • (1939 - 870,049) • (1940 - 1,263,640)

(神職會에서 보급, 神宮大廳 奉養會에서 보급)

59) 이근삼 논문, Loc. cit., p.10.

60) Ibid, p.11. "신사참배와 그 역사적 배경(3)" The Christian Clarion No. 241 : 1.

61) Ibid, p.11.

62) 박승길, op. cit., pp.61-62.

에 대한 비트권과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 안녕질서를 행하고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가벌할 것(제 16조, 26조)이라고 제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의무는 공성요배, 신사참배를 의미하였다. 범칙하는 종교단체는 면허를 박탈당하고 목사는 그 직을 빼앗겼다.<sup>63)</sup>

## (2) 한국교회와 주재 선교부의 대응

신사참배 문제가 교회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 된 것은 1915년으로 그 해 9월 전주 서문 밖 예배당에서 모인 제4회 장로회 총회에서 학생들에게 대한 제일(祭日) 참석강요의 건을 다루면서 선교사 아담스(J. E. Adams), 텔미지(John V. N. Telmage), 이여한(李如漢)목사등 3인의 위원을 선출하여 총독부와 교섭케 한 일이다.<sup>64)</sup> 교회안에서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였다. 만주침략후 1931년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도 신사참배를 강요 받게 되었다. 1932년 9월에 평양 부창동 예배당에서 모인 제21회 장로회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교회학교 학생들은 신사참배 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sup>65)</sup> 이것을 총독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차재명, 유억겸, 마펫(S. A. Moffett) 3인을 선출했다.<sup>66)</sup>

제 20회 총회에서도 전북노회장이 종교학교의 신사참배에 관하여 문의하여 이 문제를 교섭위원회에 위임하였고<sup>67)</sup> 1934년 제23회 총회에서도 황해노회장이 기독교학교 학생의 신사참배에 관한 교섭을 제의했다.<sup>68)</sup> 신사참배 문제는 해마다 제기되었는데 1935년 제 24차 장로회 총회에서도 충청노회장의 헌의로 정인파, 염봉남, 이인식, 박진근, 이학봉, 오천명 등 6인의 연

구위원을 택하여 이 문제를 연구 보고케 하였다.<sup>69)</sup> 그러자 평남 안주노회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학교의 문을 닫을 지라도 교리에 위반되는 참배를 할 수 없다 라는 결의를 하고 이를 총회 및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통고하였다. 노회차원에서 신사참배 반대 결의는 이미 1931년 여름 주기철 목사 주도로 경남노회에서 있었다.<sup>70)</sup>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은 서로 상이했다. 신사참배는 진리 문제로 당연히 반대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태도는 일치하지 못했다. 일제의 교묘한 회유책과 기만책이 말려들어서 현실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주재 선교부와 선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열된 것이다. 부장로 선교부는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대체로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들 사이에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로 신앙양심에 위배됨으로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과 신사참배에 비록 종교적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제 당국의 말대로 이것은 애국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 학교를 살리고 기독교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었다.<sup>71)</sup> 결국 강경론이 우세하여 1938년 5월 교육인퇴(教育引退)를 결의했다.<sup>72)</sup> 이에 따라 1938년부터 평양 삼숭(三崇)의 폐교를 비롯하여 대구의 계성, 신명, 재령의 명신, 선천의 보성, 신성, 강계의 영실, 서울의 경신, 정선학교등이 잇달아 문을 닫았다.<sup>73)</sup>

69)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二十四回 회록>, p.53. <한국기독교의 역사(II), op. cit., p. 295>.

70) 민경배, <순교자 주기철목사>, p.89-90.

71) 신사참배에 대해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취한 사람은 숭실학교 교장으로 있었다 이 문제로 교장직에서 파탈된 맥클은이다. 반대로 신사참배는 애국적 차원에서 가하다는 입장을 취한 사람은 연희전문학교 교장인 언더우드(H. H. Underwood)였다. 이 논쟁은 미국내의 기독교계 언론을 통한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때 일제가 정보기편을 통해 수집한 논쟁 기사를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米誌의 논설』이란 제목으로 思想彙報, 16호 1938, pp.307-318에 게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맥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반대론을 펴고 언더우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제목으로 타협적 찬성론을 펴고 있다.<한국기독교의 역사(II), op. cit., p.296참조>.

72) <동아일보> 1938. 5-6'재연된 교육인퇴문제 ... 부장로교 학교경영 62:33으로 철수 결의

73) 김양선, <한국기독교사 연구>, p.186.

63) 이근삼 논문, op. cit., p.12.

6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4회 회록> pp.38-40.

65) 『교회학교 학생이 신사 및 여러 제식(神社及諸祭式)에 참배하는 것과 일요일에 송영 등에 관하여 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한국기독교회사 II, op. cit., p.294).

66)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第二十一回 회록>, 1932, p.34.

67)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二十二回 회록>, p.9.

6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二十三回 회록>, p.11.

남장로교 선교부는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장로선교부는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하자 선교본부에 연락하여 폴턴(Dr. C. Darby Fulton)을 내한토록 했다. 폴턴은 일본에서 출생한 2세 선교사로서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신사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식견이 있었다. 그는 1937년 2월에 내한하여 전주에서 남장로회 선교사총회를 소집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신사참배를 시키기보다는 차라리 학교를 폐쇄하도록 허락하는 강경한 신사참배 반대안을 발표했다.<sup>74)</sup> 이른바 폴턴성명으로 잘 알려진 13조항에 이르는 반대안이다.<sup>75)</sup>

남장로교 소속학교인 광주 의승일, 수피아, 목포의 영흥, 정명등이 폐교당할때 이어 순천의 매산, 전주의 신흥, 기전, 군산의 영명학교등이 폐교되었다.<sup>76)</sup> 부산 마산지역에서 활동하던 호주 선교부도 1936년 2월 신사참배 거부안을 채택했다.<sup>77)</sup>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가 계속되자 1939년 1월 신사참배 할 수 없음을 결의하고 이 때부터 학교들을 폐쇄하였다.<sup>78)</sup>

### (3) 한국교회 각 교파의 태도

#### ① 감리교의 태도

감리교 선교부는 1936년 6월 29일 총독부 초청에 양주삼 총리사등이 참석하여 시국을 인식하고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배한 것이니 구태여 총회에서까지 결정할 것이 없다고 하고 1938년 9월 3일 전국교단에 통고문을 발송 지시함으로써 자진 굴복하였다. 그 통고문 내용을 보면 「연전 총독부학무국에서 신사참배에 대하여 조희한 바를 인쇄 배부

74) 서명원, <한국교회성장사>, p.82.

75) D. M. Macree collection 1933-400 "Policy regarding Schools in Korea",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pp.287-289참조).

76) 김양선, op. cit., p.185.

77) E.A.Kerr, G.Anderson,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p.57.

78) Ibid, pp.57-59.

한 일이었거니와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봉행할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고 한 것을 잘 인식하였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신사참배가 교리에 위반되거나 신앙에 구애됨이 추호도 없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sup>79)</sup> 이쯤 되고 보니 감리교계 선교사들과 캐나다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런 마찰이 없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 소속 학교들이 처음부터 신사참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신사참배 강요초기에는 이들도 반대입장에 선 것은 사실이다.<sup>80)</sup>

#### ② 천주교의 태도

1936년 5월 25일 당시 못솔리니 지배하의 이탈리아내에 있던 로마교황청으로부터 황실 존경과 애국용사존경을 나타내는 신사참배는 문화인으로써 애국심의 발로라는 칙령을 받고 노기남 주교가 전국 카톨릭교회에 신사참배 해도 좋다는 훈령을 통지함으로써 완전히 굴복했다.<sup>81)</sup>

#### ③ 안식교의 태도

안식교는 1935년 12월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1936년 1월 17일에 배사람의 대표가 평남 도지사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자진해서 신사참배를 남보다 먼저 시행하고 일본국책에 협력했고 1941년부터 탄압을 받아오다가 1943년 12월 28일에 해체 명령을 받았다.<sup>82)</sup>

79) 석원태, op. cit., pp.228-229.

80) 예들들면 원산의 캐나다 장로교선교회 소속 진성여자보통학교(進誠女子普通學校)는 만주사변 2주년 수난자 위령제에 참가하라는 통첩을 받고도 「종교상의 견지로부터 절대로 참가가 어렵다」고 회답하여 거부한 적이 있다.(조선신문) 1933. 9.27 "진성여자보통學校가 위령제 參列을 거부"

81) (大阪毎日新聞) 조선판 1936. 8.2 "신도에 대하여 신사참배를 敎示하다. 천주교의 풍습에 반하여도 좋다. 로마교황청으로부터 천명"

82) 남영환, 「한국교회와 교단」, (서울: 소망사, 1988. 9.24).

## ④ 성결교회의 태도

성결교회도 당초부터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당국의 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므로 신사참배를 했다.<sup>83)</sup>

## ⑤ 장로교의 태도

각 교파에 따라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각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천주교, 감리교,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등 대부분의 교파들이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했다. 그러나 장로교만이 외롭게 반대했다.<sup>84)</sup> 1938년 27회 총회를 앞두고 일제는 장로교회에 대하여 총력을 가하였다. 각 지방 경찰서는 전국 23개 노회 총대가 선정되었을 때 총대 포섭에 나섰고 주기철, 이기신, 김선옥목사 등 주동자는 이미 구속시켜 버렸다. 총회개회 전날 밤 평양경찰서는 평양, 평서, 안주 3개 노회대표들을 불러 총회통과 각본을 시달렸다. 평양노회장 박응울목사는 제안을 평서 노회장 박인현목사는 동의, 안주노회 총대 이인섭목사는 재청할 것을 합의하고 서명날인했다. 또한 선교사 총대들은 총회석상에서 침묵할 것을 강요당했으나 거절했다. 동년 9월 9일 오후 8시 신의주로 결정되었던 총회장소를 평양 서문 밖 교회로 옮기고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임원개선을 마치고 정회했다.<sup>85)</sup> 이튿날 경남지사와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부장 함태영 목사는 "평양, 평서, 안주 3개 노회 연합대표 박응울의 신사참배 결의 및 성명서 발표의 제안건은 채용키로 한 것이 옴..." 하자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가만 묻고 부는 묻지 않은 채 각본대로 선포하여 버렸다. 이로 인하여 장로교도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반대는 끝나고 말았다.<sup>86)</sup> 한반도내에 있던 27개 노회중 19개 노회가 이미 신사참배를 가결한 상황에서 총대들 사이사이에 경찰이 끼어 앉은 채 진행된 총회는 일제 경찰의 각본에 따라 결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말았다.<sup>87)</sup>

83) 이근삼 논문, op. cit., p.14.

84) 한국기독교의 역사(II), op. cit., p.299.

85) 석원태, Loc. cit., p.229.

86) 한국기독교의 역사(II), op. cit., p.299.

87) 발표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들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

## ⑥ 평양신학교의 태도

평양신학교 교수진은 반대파와 지지파로 나뉘어졌다. 교장 마포삼열 박사를 중심한 박형룡, 남궁혁, 이성휘등은 반대 입장에서 채필근, 김관석등은 처음부터 지지편에서 시국인식의 지도 역할을 하다가 1938년 1학기 종강과 함께 평양신학교는 폐교 조치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만난 큰 환란이었다.<sup>88)</sup>

## ⑦ 각 기관단체 등의 태도

①명사들의 어용 단체 가입 강요 ②조선 기독교 연합회 ③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 가입 ④YMCA ⑤국민 총격 조선 연맹 ⑥황도학회 ⑦조선 임중 보국회등이 모두 황국 신민화 정책의 어용 단체들이 되었다. 그리고 신사참배 결의에 공로자들 중 장로교의 홍택기 목사, 김길창목사, 감리교의 양주삼, 김종우, 성결교의 이명식등이 전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일본 여러 신궁 참여의 순례를 떠나게 되었다.<sup>89)</sup> 1938년 5월 8일 조선총독부는 일선 기독교 일체회를 내딛고 조선 기독교 연합회의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교회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1938년 5월말 일제가 조사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독교 관계의 소위 총후활동의 실시율은 교회당에 국기게양탑 건설이 88%, 국기에 대한 경례 실시가 96%, 국가봉창이 82%, 동방요배실시가 96%, 황국신민서사 제창이 93%, 서력영호폐지가 87%, 신사참배 실시가 55%로 나타나고 있다.<sup>90)</sup> 수많

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출선 여행하고 추후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統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합].

소하 13(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二十七回 회록) 1938. p.9.

88) 석원태, op. cit., p.230.

89) Ibid, p.230.

90)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사상위보> 16호, 1938.9. pp. 18-19.(한국기독교의 역사 op. cit., p.319참조>.

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에 항거하다가 투옥되거나 소극적으로 은둔 회피하거나 순응하여 부일 협력을 하게 되고 실망한 신자들은 교회를 등지는 아픔을 겪었다.

1939년 동양지광(東洋之光)이라는 친일적 잡지 2월호에 “신홍우의 조선 기독교의 국가적 사명”이라는 논설에서는 “조선을 사랑하는 것이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며 천황폐하의 충성스러운 적자(赤子)로 오직 일본을 사랑하라 이것은 조선 기독교도에게 주어진 신의 명령이다.”<sup>91)</sup>라고 했는가 하면 복음교회 감독인 최태용도 1942년 10월호에 “조선 기독교회의 재출발”이라는 논설을 통해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은 신이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일본국에 바쳐야 마땅할 것이다. 징병제 실시가 그것이다.”<sup>92)</sup> 징병제를 지지하는 논설에는 기독교 여성들까지도 동원되었다.<sup>93)</sup> 또한 1941년 10월에 최린을 단장으로 결성되어 전쟁협력과 황민화 운동의 선봉에 섰다. 조선 임전 보국단의 간부로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동원되었다.<sup>94)</sup>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다 말살된 것은 아니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에 그루터기니”라고 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각 교단의 신사참배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인물들이 있었다. 다만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점이다. 이것은 바로 핏박이 무서워서 그보다 더 큰 것을 놓쳐 버린 셈이다.

### 3) 일제의 기독교 말살 정책과 변질되는 한국교회

한국기독교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교회 본연의 자세에서 점

91) 임중국편(친일논설선집), pp.333-334.

92) Ibid, p.346.

93) YWCA총무 유각경의 “어머니 자신부터 가질 「야마도다마시」(일본정신)이라는 박마리아의 「자식 둔 보람」 어머니면 면목(每日新聞)1942,5,12-13, 김활란의 「징병제와 반도 여성 의 각오」 등이다.(新時代), 1942. 12; 임중국, op. cit., pp.258-259.

94) 최린(단장), 윤치호(고문), 신홍우(상무이사겸 총무부장), 유억겸(이사), 구자욱(이사) 그

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그 해 8월 1일 장로교마저도 시국 설교와 기도회를 승동교회당에서 개최하고 내선일체를 재인식할 것과 일본의 전승을 매일 아침 기도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일제는 이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이것은 이전에 보지 못한 장로교의 사상적 대전환이라고 환영했다.<sup>95)</sup> 이제 신사참배에 굴복한 교회는 일제의 패권주의를 향한 도구로서 전락했고 친일적 교회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을 배반하면서도 일제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일제는 집요하게 한국기독교의 변질을 강요해 왔고 그것은 한국기독교와 그들의 국책에 따르는 일본화였다. 장로교는 신사참배를 가결한 이듬해인 1939년 9월 총회에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예수교 장로회연맹을 결성하고 일제의 이른바 국책 수행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일제는 기독교의 황민화 정책과 한국기독교 교파를 일본과 통합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신체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일제가 한국교회의 신앙사상까지 저들의 국책에 순응토록 하는 일본 예속화 작업을 위한 음모였다. 어리석게도 한국교회는 교파별로 일본내에 있는 동일교파와의 합동을 결의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국내 교파간의 합동을 위하여 1942년 1월부터 교파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42년 3월에는 각 교파가 그 고유한 교파명을 내리고 조선 혁신 교단을 조직하고 1943년 5월 5일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란 명칭을 일본기독교 장로교단이라고 개칭했다.<sup>96)</sup>

1945년 6월 25일 부총독실에서 55명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새 교단구상을 제의했고 여기에 모두 찬성의 의사를 보였으며, 1945년 7월 19일과 20일 사이에 교파 합동 준비위원회가 정동교회에서 모였다. 27명의 장로교 대표자들을 위시하여 감리교, 구세군등 59명의 각 교파 대표자가 모

리고 평의원으로 오궁선, 양주삼, 정인파, 정춘수, 박인덕, 황신덕, 채필근, 박희도등이 그들이었다. <김상현 편(어둠이여 햇빛이여) 부록(민족정기의 심판) pp.277-278. (한국기독교의 역사(II), op. cit., p.322참조>.

95) (경성일보), 1937. 8. 3 “날로 장로파도 조국애로 급전향”

96) 석원태, op. cit., p.231.



여 조선 교단을 설립한 후 일본 교단에 완전히 소속시켜 버렸다. 예배직전에 일본 국기와 가마다나(神棚) 배례, 일본국가 가미가요와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을 하게 했고 기도과 설교도 일본말로 해야했고 국방헌금 교회중 헌납과 주일을 근로봉사일로, 예배당을 공동 작업장으로 삼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교회가 일제로부터 수난당할 때 신사참배 반대 운동자들은 투옥되고 한국을 떠나는 선교사들이 늘어만 갔다.

1942년 3월에 총독부는 기독교 각 교파의 해산 통합의 일환으로 일본 기독교 조선 혁신 교단을 조직했다.<sup>97)</sup> 찬송가도 일본의 정신에 맞도록 모두 수정했다. 성경은 유대 민족의 독립을 기록한 출애굽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사용은 폐지하고 나중에는 결국 4복음서만 사용하도록 지시했다.<sup>98)</sup> 이 일은 모두 한국교회내의 어용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다.<sup>99)</sup> 주일 오후, 주간, 수요일밤 기도회 등을 금지시키고 도시교회를 통폐합시키므로 남는 예배당을 군용으로 징발하였다.<sup>100)</sup>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 국민의례나 교회당 성종헌납, 국방헌금 등에 불복 또는 무성의하다 하여 투옥되거나 함구령, 금족령 등으로 활동을 억제 당했다.<sup>101)</sup>

#### 4. 일제의 종교 정책에 항거하는 진리운동

##### 1)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배경

신사참배는 일본국신(日本國神)을 숭배하는 일종의 우상 예배와 종교의 식이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조선 총독 남차량이 평양 숭실학

97) 이근삼 논문, op. cit., p.17.

98) 석원태, Loc. cit., p.231.

99) 김양선 저, op. cit., pp.201-202.

100) Ibid, p.202.

101) Ibid, p.203.

교를 위시하여 기독교 교육기관에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sup>102)</sup> 여기에 반대하는 진리의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항거가 계속되었다. 일제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는 자를 국체변혁과 천황에 대한 불경건 죄로 기소했다. 일제는 그들이 민족주의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는 자들은 민족주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성경정신에 그 뿌리를 둔 것이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철두철미한 기독교 신앙운동에 그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운동이 자연스럽게 내 민족을 일제의 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병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103)</sup>

##### (1) 절대 성경주의 신학과 신앙운동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오직 성경주의에서 출발하였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며 만물을 섭리로 주재하시는 유일절대 지상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영원불변하신 분이요. 다른 모든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천조대신을 위시하여 800만 신들과 역대의 천황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배하에 있다고 했다.<sup>104)</sup> 이기선 목사는 설교하기를 “천조대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잡신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했다. 주남선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성신주신 사랑, 계명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sup>105)</sup> 신사참배는 제 1,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 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악이라는 사상이었다.

102) 파수군 15호 부산고신대학(도서출판 목양), 1990, p.22.

103) Ibid, op. cit., p.235.

104) 손양원목사, 판결문 1941. 11.4(이근삼 논문, op. cit., p.20 참조).

105) 석원태, op. cit., p.236.

### (2) 선교적 사명의 신앙운동

신사참배 문제로 구금, 심문, 초달을 받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사명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 기회에 일제의 관헌들에게 전도하는 뜻을 품게 되었고 심문에 대답을 복음설명으로 사용하였다.<sup>106)</sup> 그 차원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곧 예수증거행위다. 그것은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포행위라고 생각했다. 국법은 자연인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기독교신자들은 자연법(국법)에 살면서도 영혼의 법인 성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삶의 수칙으로 여겼다. 국법이 성경법을 파괴할 때 참된 기독교신자는 당연히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저들의 신앙상식이었다.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영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07)</sup>

### (3) 종말론적 부활신앙운동

신사참배에 반대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부활신앙의 절대적 신뢰에 근거한 것이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과거 기독교 역사상에 나타난 환란과 동질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들은 이러한 현상을 말세적 현상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으로 연결시켰다. 눈에 보이는 천황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 저들은 육박 중에서도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에 광복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재림 소망이 어디 손양원 목사만의 신앙이겠는가라는 손양원목사와 일본검사의 일문일답은 곧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림신앙의 투명성이다.<sup>108)</sup>

### (4) 하나님께 영광인 순교신앙운동

일제의 핍박 중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기를 원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는

106) 이근삼 논문, op. cit., p.24.

107) 석원택, Loc. cit., p.236.

108) 이근삼논문, op. cit., p.23.

일본검사(문): 너의 전도활동은 일본을 파괴할 목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성경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을 증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을 배반하는 경우에는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일제에 의해 감옥에 가는 것을 저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기철 목사는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였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마지막 설교도 일사각오였다. 주남선 목사는 1940년 7월 16일 거창경찰서에서 구금되어 진주경찰서로 압송된 뒤 김을도형사에게 4차 심문 당하는 중에 문답한 신사참배 반대운동 설교 요점은 요한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제목이었다.<sup>109)</sup> 박관준 장로는 크게 깨달은 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생을 두려워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죽는다고 하였다. 한상동 목사는 우리는 여하한 곤란 중이라도 죽음을 각오하는 바른 진리를 위한 삶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김인희, 박의홍, 김형락, 김운섭등은 성경의 계명수행에는 오직 성경뿐이라고 천명했다.<sup>110)</sup>

## 2)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유형

전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은 전혀 통일성을 상실했다.

손목사(답): 그리스도의 재림시에는 일본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다가는 불신국가와 함께 우리는 결과적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므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마지막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될 때는 국가제도가 자연히 바뀌어질 것이고 그 때에는 신사참배는 다시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원리가 국가의 기초가 되겠지요...

일본검사(문):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의 믿는 대로 재림한다고 하지 그래도 무력을 갖춘 일본을 그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파괴의 방법은?

손목사(답): 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력은 아닙니다. 무기는 사람의 싸움을 위한 것이고 무기 사용을 원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기독교회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면 무기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본신도의 신화적 신앙에 기초한 현 일본국제는 망할 것입니다.

일본검사(문): 너의 전도사업은 일본 국체를 파괴하는 방법이라고 인정한다. 너의 의견은?

(1) 신사참배 술선 수범하는 자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적극 참여하는 술선 수범으로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하는 길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다.<sup>111)</sup>

(2) 소극적 태도의 기회주의자들

이들은 신사참배에 대하여 양심에 가책을 받으면서도 반대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침묵하면서 처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본총독부나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신사참배를 철회하도록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다.<sup>112)</sup>

(3) 적극적인 방법으로 항거하는 자들

신사참배는 성경의 계명위반으로 보고 순응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죽음을 불사하고 항쟁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활용하여 오

손목사(담): 무기로 저항할 의도는 전혀 없으나 백성들이 복음화되면 일본은 현 국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신도국가체제를 변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겠지요

(손양원, 체형조서, pp. 20-21참조).

109) 파수꾼 15호, op. cit., p.24.

첫째는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둘째는 사랑하심으로 성신을 주시고

셋째는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받은 신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범죄할 수 없으며 뱀후 3장에 말세적 신자는 성결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으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에 말세의 정조로 환난이 심할 것과 기근이 심할 것과 교회의 박해가 심할 것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으며 악한 사상이 성함으로 인심이 악화될 것과 이상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예수 천년왕국에 들어갈 신자는 우상예배인 신사참배는 절대 못할 것이라 하였다.

110) 석원태, op. cit., p.237.

111) 이들은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천조대신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미소기바라이) 일본 천황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 것이 그 실례이다.

112) 석원태, op. cit., pp.234-235.

직 순교정신으로 신앙정조를 지킨 자들이다.<sup>113)</sup>

5. 일제의 식민통치 종식과 한국교회

1) 8.15해방과 한국교회의 음과 양

일제는 미군이 필리핀을 함락 승리했을 때 미소군이 조선땅에 진격했을 때를 가상하고 이때 조선내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협력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945년 8월 17일을 기하여 조선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일본 사상에 반대 비협조하므로 불온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고 명단 작성과 살해 방법을 간구하던중에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태양신을 굴복시키는 심판의 불이 되어서 환난의 날을 이틀 감하여 8.15의 종전과 함께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다. 이날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씨조선 오백년과 함께 수천년의 왕을 중심한 이 나라의 정치 체제가 백성을 중심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실로 퇴역적이고 퇴폐적인 일인독재에 묶여있던 권력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중의 마음과 소리와 힘이 묶여져 대한민국을 출생시킨 것은 정치적 새 출애굽의 날이다. 또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 태양신의 탄압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영적인 새 출애굽이라 할 것이다.<sup>114)</sup>

왜정 말기 일제의 한국 교회에 대한 탄압은 분명히 역사상에 자주 자주 등장했던 애굽, 바벨론, 로마의 재판(再版)이었다. 8.15해방의 종소리는 한

113) 평북에는 이기선목사를 중심으로 신의주, 강계, 선천, 정주, 박천, 영일등지에서 평남은 평양을 무대로 주기철목사를 중심으로 평남은 한상동목사를 중심으로 부산, 마산, 함안, 거창, 남해, 진주, 하동, 창영, 통영, 협천, 산청등지에서 전남은 손양원목사를 중심으로 만주에서는 한부선교사를 중심으로 할빈, 봉천, 무순, 안동등지에서 진리수호를 일사각오로 전개했다(석원태, op. cit., p.235).

114) 석원태, 학생신앙운동 20년사, (이주사). 1971. 9. 7

국 기독교의 무너진 재단 수축을 알리는 회개와 영적 부흥운동을 알리는 신호였다. 8월 17일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5년간 혹은 7년간 투옥되어 있던 교회지도자들이 전국에 있는 형무소에서 출옥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 관찰령 제3호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기 꼭 하루 전이다.<sup>115)</sup>

#### (1) 북한 교회들의 재건운동

평양 감옥에서 나온 이기선, 채정민, 한상동목사를 위시하여 1945년 9월 20일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한국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채택하고 이를 발표했다.<sup>116)</sup> 그러나 당시 교권을 행사 해 왔던 교권주의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938년 27회 총회장이었던 홍택기목사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115) 홍의표, 「현대교회의 동향」, 보문출판사, 1979, pp.88-89.

최 훈, 「한국교회박해사」, 예수교문서선교회, 1979, pp.72-73.

당시 출옥한 사람 중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한 이들로는, 고흥봉(高興鳳)목사(당 51세) : 평북 강계 출신, 김린희(金麟熙)전도사(당 38세); 평북 선천 출신, 김형락(金滢樂)영수(당 43세); 평북 정주 출신, 김화준(金化俊)전도사(당 37세); 평북 의주 출신, 박신근(朴信根)집사(당 37세); 평북 선천 출신, 방계성(方階聖)전도사(당 58세); 부산 출신, 서정환(徐廷煥)전도사(당 40세); 평북 강계 출신, 손명복(孫明復)전도사(당 35세); 경남 창원 출신, 안이숙(安利淑)선생(당 38세); 평남 박천 출신, 양대륙(楊大錄)집사(당 32세); 평북 초산 출신, 오윤선(吳潤善)장로(당 75세); 경남 함안 출신, 이광록(李光錄)집사(당 39세); 평북 의주 출신, 이기선(李基宣)목사(당 67세); 평북 의주 출신, 이인재(李仁宰)전도사(당 40세); 경남 밀양 출신, 이현숙(李鉉續)전도사(당 46세); 경남 함안 출신, 장두희(張斗熙)집사(당 35세); 평북 위원 출신, 조수옥(趙壽玉)전도사(당 32세); 경남 하동 출신, 주남선(朱南善)목사(당 58세); 경남 거창 출신, 최덕지(崔德支)전도사(당 45세); 경남 고성 출신, 채정민(蔡廷敏)목사(당 74세); 평남 개천 출신, 한상동(韓尙東)목사(당 45세); 경남 거창 출신등이며 대구, 광주, 부산, 청주, 형무소등에서 출옥한 이들로는 김야모, 김두석, 김영석, 손양원(孫良源), 엄매나, 이술연등 제씨들이다.(이상규 논문 「교회재건과 고려파 형성」, p.171).

116)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예수교 장로회 종교교육부, 1945, p.45.

한국교회 재건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교회의 목사, 장로들은 모두 신사참배하였으므로 권정의 길을 취하여 통화 정화한 후 교역에 나올 것
- ② 권정은 자체 혹은 자속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강단에 서지 말고) 휴직하고 통화자복 할 것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했다.<sup>117)</sup> 이들은 모두 일본기독교 조선 교단의 지도자들이었다. 김재준 목사를 위시한 신학자들은 신학적 차원에서 출옥지도자들의 교회재건 운동에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투옥된 자들은 그들의 출옥과 함께 그들 자신의 신성성과 양심에 충성했다는 정신성을 과시하여 출옥성자로 자천하며 그 보수로 정신적 특권인 자교, 자만, 독선을 선포하고 신경 과민적인 부정 공포증에 걸려 스스로 세상과 절연시켰다고 혹평했다.<sup>118)</sup> 북한 5도 연합회는 1945년 12월 초순에 소집되어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 짓는 방안으로 전 교회는 2개월간 근신한다고 출옥지도자들을 지지하는 듯했으나 결국 교권장악을 위한 방편에 그쳤다.

또한 일제의 종교 탄압에 대하여 30여 교회가 규합하여 1949년 5월에 독노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일명 혁신복구파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목사직을 시무투표로 선정할 것등 복구 조항을 작성했으나 공산정부와 어려움을 겪다가 1951년 1.4후퇴 시에 월남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sup>119)</sup>

#### (2) 남한 교회들의 재건운동

1945년 9월 8일 남부대회를 소집하여 조선 교단의 존속을 논의하였으나 감리교측이 자체교회의 재건을 선언하고 퇴장하였고 장로교측에서도 자체교파의 환원을 주장하는 교역자들이 속출하여 마침내 남부대회는 무산되었

③ 목사와 장로 휴직 기간에는 집사가 예배인도 할 것

④ 위와 같은 교회 재건의 기본원칙을 전 한국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시행 할 것

⑤ 교역자 양성기관과 신학교를 복구재건 할 것

117) 교권주의자들의 반대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고생은 마관까지였고 교회를 등지고서 일제의 강요에 어쩔 수 없어 굴복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② 신사참배 회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체결된 성질의 것이다(이근삼 논문, op. cit., p. 28).

118) 석원태, op. cit., p.245.

119) 이근삼 논문, op. cit., p.30.

다. 1945년 9월에 각 교파가 자체 교파에 복귀하게 됨으로 일본 기독교에 속했던 교단은 완전 소멸하게 되었고 조선 교단을 존속시켜 교편을 위한 정치적 욕심을 채우고 따라서 친일의 불명예를 은닉하려고 했던 숨은 의도가 성취되지 못했다.<sup>120)</sup> 장로교는 1946년 6월 12일 서울 송동교회당에서 남부 노회를 개정하여 남부총회로 열었다. 이 총회는 북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본 조선 혁신교단 지도자들이 주도했다. 회장에 배은희, 부회장에 함태영씨를 각각 선출했다.<sup>121)</sup> 이 총회에서 저들은 신사참배를 불법결의로 취소하고 조선 신학원을 조선신학교로 승격 개칭하여 남부총회 직영신학교로 결정했다.<sup>122)</sup> 실로 이 결정은 한국교회를 들이킬 수 없는 과오의 수렁으로 몰고가는 일이었다. 이 조선신학원은 평양 신학교가 진리 운동 때문에 폐교조치당한 후 서울에서 조선총독부의 보호 아래 1939년 10월 개교를 보아 해방될 때까지 성장했다. 초대 교수로 채필근, 김영주, 함태영, 이정로 등이었고, 그 후 김재준, 송창근, 윤인구, 한경직 등으로 보강되어 명실공히 자유주의 신학의 산실이 되었다. 이 학교는 지금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이것이 1953년 6월, 장로교안에서 기장이 분리되는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1945년 9월 18일에 부산진교회당에서 경남노회가 조직됐다.<sup>123)</sup> 이 노회는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 정책적 행동에 가담한 것을 회개하고 자숙안을 제출했다.<sup>124)</sup> 1945년 12월 3일 마산 문창교회당에서 제 47회 정기 노회가 열렸다. 주남선목사는 회개 할 것을 촉구하고 자숙안을 찬반양론 끝에 통과시켰으나 교권주의자들은 교권장악에 주력했고 노회의 혼란만 야기시켰다.<sup>125)</sup>

120) Ibid, p.3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p.456참조.

121) 이들은 부임 목사들로 노회파송 총대가 아니었으나 이전 조선교단때의 지도자들이었고 교회보다는 정치적 역량이 많은 자들이었다.

122) 석원태, Loc. cit., p.245.

123) 이 노회는 1942. 5. 25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경남 교구 처로 개편됐다가 이제 경남노회로 복구된 것이다.

124) ① 목사, 전도사, 장로들은 일제히 자숙에 옮겨 일단 교회 사무를 사직할 것

② 자숙기간이 종료되면 교회는 사직자에 대한 시무투표를 시행하여 그 진퇴를 결정할 것

125) 이근삼 논문, op. cit., p.33.

평양서 출옥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출신이 경남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북한 실정의 재건 향상이 어두워짐을 보자 구사일생으로 월남하였다. 월남한 저들은 고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남부총회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고 더욱이 자유주의 신학의 산실인 조선 신학원을 남부 총회 직영 신학교로 결정(조선신학교) 한 것을 보고 아연실색한 나머지 남한 교회 재건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저들의 재건운동의 과제는 ① 신사 참배죄에 대한 회개 ② 교회 지도자들의 자숙 ③ 평양 신학교 계승을 위한 신학교의 설립으로 순교자의 정신을 계승하기 원했다. 그 결과가 1946년 9월 20일 개교를 본 고려신학교의 설립이었다. 교장 서리에 박윤선목사, 초대 교장에 박형룡 박사가 취임하였다. 고려신학교의 신학사상은 조선 신학교와 완전히 대립이 되고 말았다.<sup>126)</sup>

## 2)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의 비전

일제식민 통치하에 종교정책은 정권에 의해 교편의 보호를 약속 받고 그 대신 천황제 중심의 정권의 지배 정당성 논리의 교화를 담당하는 기구로 작용한<sup>127)</sup> 일차적 목적외에 기독교 교유의 교리와 신앙 전통마저도 일본의 토속종교와 접목시키기 위함이었다. 특히 기독교는 사회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도록 통제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예배 행위는 늘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종교가 어떤 경우에든지 개인의 현실 문제와 인간의 수양에 도움이 되는 데 국한하여 국가가 이를 방조하고 양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된 종교는 그 자체가 사회를 선도하고 비록 국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국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도덕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종교정책은 현실감각을 박제화시키고 오직 종교가 개인의 정신수양이나 개인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데 철저히 국한시켰다. 이러한 것마저도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거슬러거나 위해가 될

126) 석원태, op. cit., p.246.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감히 통제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체의 종교정책은 나중에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사이비한 신흥종교가 발생하는데 먼 원인이 되기도 했다.<sup>128)</sup>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그 처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대단히 진부(陳腐)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이미 교회는 교회적 사명을 상실한 교회다.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지상교회 생활은 무시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창출한다. 개혁자들은 가전적 교회와 비가전적 교회를 구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두 개의 서로 다른 분리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개 교회의 두 가지면일 뿐이다. 프랑소와 뱀텔은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의 견해를 잘 요약했다.<sup>129)</sup> 칼빈은 특히 교회의 가전적인 면에 언제나 크나큰 강조를 두었다. 그에게 있어서 참 교회는 교회위에 그 어느 곳에 떠도는 어떤 플라톤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땅위에서 보는 그대로의 교회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성격으로서의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지상의 단체 안에서 보이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며 성례가 그리스도의 범령에 맞게 집행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라 함을 의심해서는 안된다.<sup>130)</sup>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회는 권징을 포함하여 교회의 의적표지를

127) 박승길 논문, Loc. cit., p.62.

128) (필자주) 필자가 연구한바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있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포함한 이단 종파가 해방 후에 나타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필자 논문, 「개혁주의입장에서 본 신비주의 비판」, 1982 참조).

129) 『F. 뱀텔』저 Calvin, 1965, Pontana press 11, p.297.

「비록 교회가 두 개의 뚜렷한 변모로써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그중에 하나는 신앙의 대상이며 다른 하나는 체험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대로의 교회와 우리에게 보이는대로의 교회인) 두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칼빈은 오직 한면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의 머리로서 예수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를 섬긴다는 사실에 의하여 분명해졌다」

130) Kiasa Runia (문창주 역), 오늘의 종교개혁 영음사, 서울: 1971, pp.45~46).

말하고 있다.<sup>131)</sup> 그런데 칼빈은 권징을 교회 표지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존경하며 성례를 바로 집행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sup>132)</sup>고 함으로 권징이 교회 표지라기 보다는 참 교회의 책임성으로 생각하고 있다.<sup>133)</sup>

한국교회는 일체의 황민화를 위한 기만 술책에 아무 대책 없이 신앙 정조를 유린당했다. 신사참배 비종교화정책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교회가 일체의 황민화정책에 그 순결성이 크게 오염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의 경거망동은 반드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될 어린 성도들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과오일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일체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나온 우리의 선조들은 지혜로웠다. 일제 무단정치하에 자행되었던 신사참배에 대하여 시시비비하기 전에 모두가 공죄라고 한 선조들의 신앙 양심은 후손들에게 길이 교훈이 될 것이다. 일제하에 정치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보아 왔다. 한번도 공식적으로 물어 보거나 따져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민족 양심 이전에 국가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우선 급한 반공을 해야 했고 교회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6·25동란 이후에는 폐허된 조국 산하를 재건하는 근대화 작업에 그들을 다시 등용 하여야만 했다. 이것이 민족양심의 아이러니(irony)이었다. 그러나 조국을 배반한 자에 대하여 중국의 경우와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sup>134)</sup>

131) 제일스코틀랜드신앙교백, 1826, 벨기에 신앙교백 제29조.

132) Calvin, 『기독교강요』, Vol, 4 : 1 : 9

133) 이근삼 논문, op. cit., p.38.

134)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약10년 동안 일본군의 유린 하에 있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부역했는데 2차대전이 끝난 후 중국에서는 그들을 가차 없이 처단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당의 장개석이나 모택동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치하에 있던 4~5년 동안 조국을 배반하고 나치에 협력 부역자들을 드루피 귀국하여 집권을 잡은 후에는 가차없이 처단했다. 심지어는 나치가 수립해 준 비시정권의

일제 36년 동안 친일로 인해 그들의 황민화 정책에 순응한 자들이 해방 후에 다시 반공전선에, 산업현장에, 복음전선에, 교육일선에 등장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것은 그들에게는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민족 앞에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국운이 기울고 민족의 양심단체인 교회마저도 그 순수성을 상실했던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 동안 뜨거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신사참배의 환난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 것이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과거에 못된 짓을 했으니 나는 혹은 너는 얼마나 죄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전과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으로 삼을 뿐이다. 그런데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 필자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공리 앞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것은 아직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1세기를 향하는 한국 교회는 우리의 후손들 앞에 참으로 깨끗해야 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순교의 피로 점철된 신앙의 기초위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반이며 드골의 상관이기도 했던 당시 80세가 넘는 페탱원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가 무기형으로 감형 무인도로 유배시킬 정도였다. (송건호, 민족통일을 위하여,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 한길사, 서울 : 1986, pp.140-141참조.)

## 참 고 문 헌

- 강만길(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 한길사, 1986.
-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45.
- 남영환, 「한국교회와 교단」, 서울 : 소망사, 1988.
- 白樂濬, 「한국 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1973.
- 박승길 외 공저,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35집, 서울 : 학문과 지성사, 1992.
- 박용규, 「한국 장로교 사상사」, 총신대 출판부, 1992.
- 昔元太, 「설교전집 11권(예수의 흔적)」, 서울 : 경향문화사, 1982.
- \_\_\_\_\_, 「저작사집 요한계시록 강해(上下)」, 서울 : 경향문화사, 1989.
- \_\_\_\_\_, 「학생신앙운동 20년사」, 전국학생신앙운동, 아주사, 1971.
- 이근삼, 「신사참배를 제검토 한다」, 신학정론 제13권 1호, 합동신학원, 1995.
-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7.
- 이상규 논문, 「고신대학 논문집 12편」, 고신대학, 1984.
- 최 훈, 「한국교회 박해사」, 서울 :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9.
- 홍의표, 「현대 교회의 동향」, 서울 : 보문 출판사, 1979.
- 玉川信明(이은순 역), Anarchism, 서울 : 도서출판 서울, 서광사, 1985.
- 「朝鮮法令集覽」(상권), 조선총독부편(경성 : 제국행정조선본부), 1922.
- 파수꾼(13, 14, 15호), 부산고신대학, 도서출판 목양, 1990.
-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예수교 장로회 종교 교육부, 1945.
- 한길 역사강좌, 「한국의 사상」, 한길사, 1989.
- \_\_\_\_\_,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 한길사, 1986.
- 기독교 대백과사전 Vol. 2, 기독교문사, 1984.
- 국회도서관(한국민족운동사료), 1978.
- E. A. Kerr, G. Anderson,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 K. S. Latourette,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7,  
Zondervan, 1970.

## 여성 목회 참여에 관한 소고

석 기 현\*

서 론  
여성 목회에 관한 견해들  
여성 해방론자들의 성경 접근 방법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문들  
결 론

### 서 론

해방신학은 오늘날의 사회 속에 있는 여러 형태의 억압당하는 계층의 현실을 반영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여성 해방신학은 바로 이와 같은 해방신학의 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 까닭에 여성해방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전제는 곧 여자는 전 인류 역사를 통하여 대대로 남자에 의하여 억압을 당해 왔다는 것이다.

여성 해방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는 오로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부류의 인간을 영구적으로 열등한 상태로 종속시켜 버린 상태라고 한다. L.M. Russell은 A. Bebel의 글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여성은 속박의 상태를 제일 처음으로 경험한 인류이며 또한 남자 노예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여성은 노예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여성은 아버지와 남

\* 필라델피아 세천교회 목사(Biblical 신학교 S.T.M)